

지구촌비전

Vol. 277

2023. 5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특집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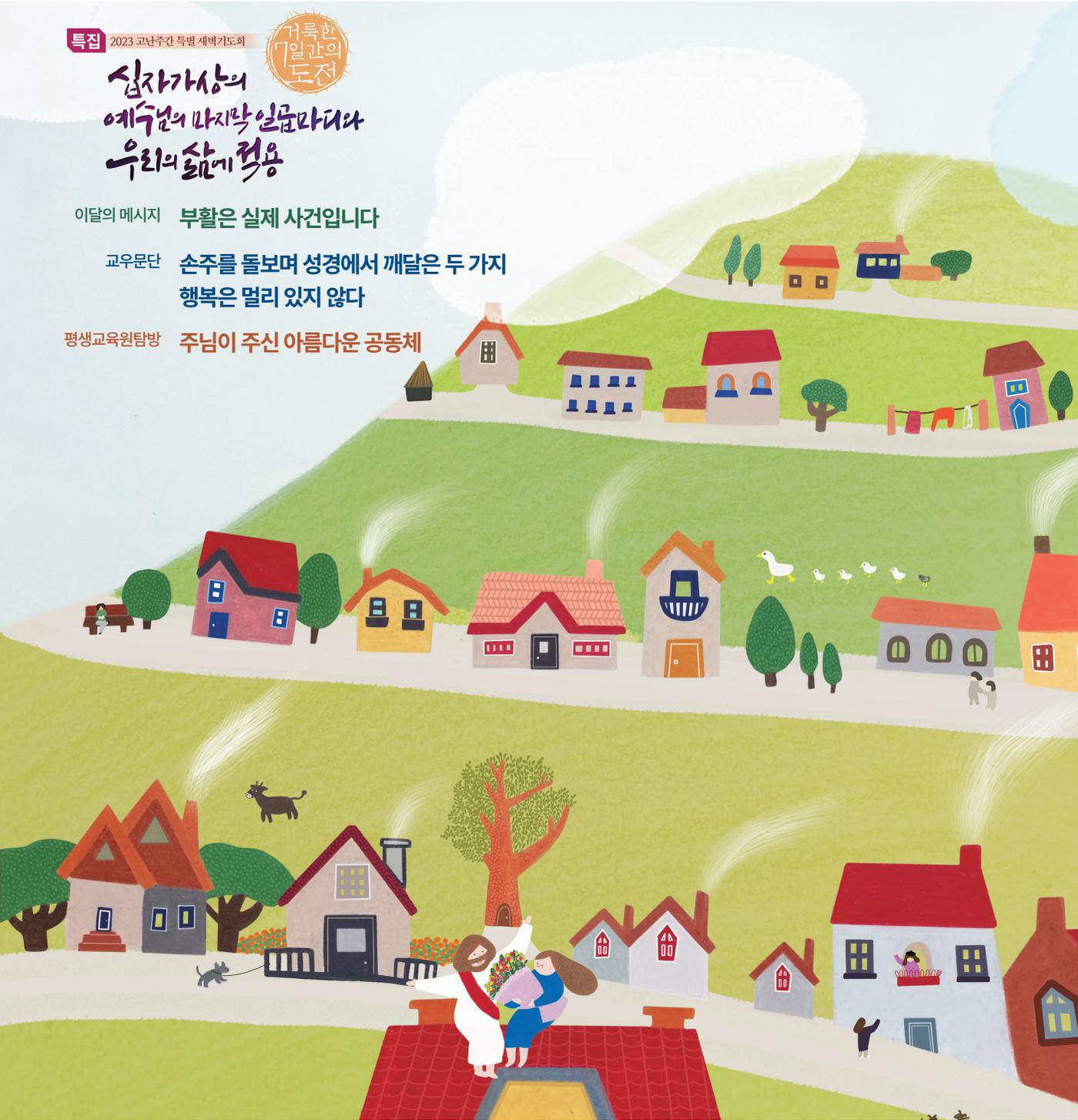
거룩한
7일간의
도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마디와
우리의 삶에 적용

이달의 메시지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교우문단 **손주를 돌보며 성경에서 깨달은 두 가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평생교육원탐방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LOVING
JESUS
LOVING
FOREIGNERS

글로벌 패밀리 워십

GLOBAL FAMILY WORSHIP

5/21(주일) | 10시 & 12시 예배
분당 & 수지채플

May 21(Sun.) | 10AM & 12PM
Bundang & Suji Chapel
031-710-5981



LOVING
JESUS
LOVING
FOREIGNERS



LOVING
JESUS
LOVING
FOREIGNERS



Contents

- 2 이달의 메시지**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 8 지구촌 소식**
목장교회 주일예배
- 10 특집** 2023 30년주년 특별 세례기도회 가득한
7일간의
도주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문라디나
우리의 조에게 적용**
- 25 이달의 칼럼**
만남—두물머리
- 28 사진으로 보는 은혜의 단상**
거미줄 그네
- 29 목장이야기** OPEN
목장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32 미취학지구** OPEN
손가락을 하나님께 넘겨 드리기
- 34 청년지구** OPEN
- 제 삶에 뿌려진 목자라는 씨앗!
- 목장을 배가하며
- 36 복자선교부**
예수님만 바라는 우린 아름답게 공동체입니다.
- 37 영어예배부**
Everything is on God's Hands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 40 글로벌목장센터**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
- 42 지구촌 리뷰**
- 부활주일, 예수님! 살아나셨다
- 44 해외선교부**
MD 선교센터에 가득했던 부활의 기쁨!
- 46 내 평생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 49 교우문단** OPEN
- 외할머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 손주를 돌보며 할배가 성경에서 깨달은 두 가지
- 하나님! 저 오랜만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 60 지구촌 카페**
미국을 다시 일깨운 애즈버리 부흥운동
- 62 나의삶 나의찬양** OPEN
찬양대 섬김의 은혜
- 64 시네마스토리**
가버나움
- 66 영적 근육 키우기** OPEN
영적 근육 키우기 12주차
- 68 GMN**
2023 독일체코 해외 기독교 사적지 순례
- 72 평생교육원 강좌 탐방**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 74 마음 치유 클리닉**
뭘 얘기해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미성숙한 엄마
- 77 Again! 회복**
Again! 감사
- 78 지구촌갤러리**
지구촌 미술회 제25회 바실레이아 정기전
- 80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세상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을 위한 따뜻한 마음

OPEN 표시는 '열린 지면'으로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원고접수 및 안내'를 참고하세요.
채택되신 분은 MD프라자 705호 역사자료문서선교팀으로 방문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38-46



최성은 담임목사

죽음에 관해 우리가 인정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나이 순서가 없다.
- 생명을 연장받는다 해도, 그 사람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 건강을 위해 부단한 애를 써서 노화는 늦출 수는 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 매일매일 평온한 삶을 살았더라도, 어느 날 누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지진이나, 홍수, 산불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닥치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죽음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 전쟁의 경우에는 더욱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이 계신다. 그 상처와 고통은 깊고, 오래가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다. 사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와야 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실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히브리서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이 선언은 누구나 순응해야 하는 진리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삶을 평가하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는 묵직하게 다가온다. 성경은 죽음 후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성경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나 같은 제한적인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유다 지역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 정황상 젊은 나이에 중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다.

3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셨다. 이는 인간이 맞이할 육신적 죽음의 운명에 대한 슬픔, 나사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죄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다 아시면서 일어났다. 아니 심지어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³²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³³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³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³⁵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한다.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주님의 평가를 나타내는 대표적 두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슬픔'과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¹⁵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¹⁶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시편 116:15,16 새번역)

여기 귀중히 여기신다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마치 가장 귀한 보석처럼 하나님 자녀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렇다. 비록 죄의 권세로 인해 생로병사를 맞이해야 하는 인간이지만,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주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랑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아니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의심했다.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때로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을 뒤로 하고, 주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은 무덤은 주로 동굴이 많았다.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막아 놓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뜻밖의 명령을 하신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명령에 마르다가 놀랐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진짜 죽은 상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믿음이었더라도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비를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실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마르다가 이제까지 고백한 믿음대로 현실의 삶에서도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신다.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²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 주시는 것이다. 동시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

⁴³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기록한다. 마치 오래된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로를 힘차게 부르셨다. 그리자 거기 있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

⁴⁴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의 시신은 베로 동여 감싼다. 그런 나사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문을 온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그들은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나사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은 실상 요한복음 5장 말씀의 본보기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다.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²⁶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²⁷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함을 주셨느니라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부활절 즈음에 런던에 다니는 버스들에 단순한 광고를 실기 시작했다. **“There is no resurrection” (부활은 없다)**.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다. 기독교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러자 다음 주에 다른 버스들에 이런 답글의 문구가 붙었다. **“What if?” (만약 죽은 후에 부활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영원성을 사모한다. 영원히 사는 천국이 존재한다는데,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영원성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원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앓기 때문이고,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을 증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은 그냥 불신앙이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인간의 패기이다. 현실에 너무 만족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 싫은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현실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신의 존재나 사후를 거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죽음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동시에 부활 역시 믿기지 않고 종교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삶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은가? 아니면,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믿고 싶은가?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성경이 그 후에 심판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인 것처럼 부활 역시 모두에게 다가올 실제 사건이다. 단, 부활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4:15).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한 그림자의 삶이다.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이다. 그림자, 연습 자체로도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습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23년 부활주일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으면,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 썩은 송장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름을 대신 불러 주시는 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아,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라!
세상이 결코 이루어 줄 수 없는 헛된 망상 가운데 나오라!
너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나오라!
시시 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나오라!
모든 종류의 중독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자기연민과 열등감과
교만감과 모든 어둠에서 나오라!
부활로 나오라!”**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눈물과 심한 슬픔으로 통곡하셨을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통곡이었는가?

죄로 죽을 인간이 다시 살아날 소망을 다시 가질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통곡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통곡하신다.

혹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 통곡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연장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는가? 오늘 하루의 삶과 순간이 모여서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어진 하루의 삶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을 감당할 것인가?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 또한 실제이다.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한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구촌**

목장교회 주일예배 5/14(주일)

5월 14일 주일은 목장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주일 예배장소입니다. 목장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왜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목장교회별로 드리나요?

목장교회 주일예배의 목적은,
첫째, 유사시에도 목장교회로 교회가 존재하도록
둘째, 목자들이 '평신도 목회자'(Lay Pastor)가 되도록
셋째, 목장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목장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Q2 목장교회 주일예배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현재 소속된 목장교회가 없거나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거지 지구교역자에게 전화하여 참석 의사를 밝히고 모임 장소와 시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목장교회 주일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게 되나요?

우선 목장교회 주일예배는 각 목장교회의 목자의 인도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장교회 모임의 형식을 따르되 말씀 나눔의 시간만큼은 미리 제공된 영상 설교를 시청한 후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Q4 헌금은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주일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헌금을 목장교회 예배 중에 드리면 됩니다.

당일 목자가 목장교회별로 헌금 봉투를(종류별) 미리 준비해 놓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전 주에 미리 가져다가 헌금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당일(14일, 주일) 드린 헌금은 목자와 회계의 확인 서명을 거친 후 목자 또는 회계 담당 목장원(2인 이상 동반)이 가급적 오후 5시까지 교회 청지기실(재정국 수지 301호, 분당 818호)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어린이·청소년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날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 주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참석 수가 많을 경우에는 목장교회 상황에 따라 설교 후에 별도의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6 당일 VIP(새가족) 인도 및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당일에 모시고 올 VIP(새가족)들이 있다면 사전에 목장교회 주일예배 안내를 해 주시고 본인의 양해를 구하여 목장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환경인만큼 인도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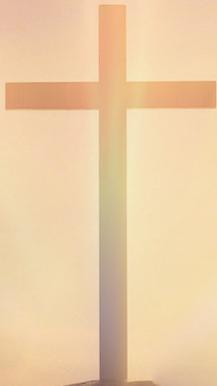


문의 장년목장센터 분당 031-710-9430 수지 031-270-8140

특집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마디와
우리의 삶에 적용



눈물의 나눔, 감사의 나눔, 행복한 나눔

채민지

수원에서도 끝자락인 호매실동에 사는 목장식구들에게 특새를 현장예배로 강요하기에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새를 모두 참석하기로 제안하여 1) 현장예배 드리기 2) 실시간 유튜브 예배 드리기 3) 시간을 딱! 정해서 온 가족 저녁부흥회로 4) 시간을 정해서 혼자서라도 드리기로, 목장식구들과 특새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특새 첫날인 월요일 아침 일찍 특새 영상을 목장카톡방에 올리자 ‘목자님! 저 교회까지는 못 갔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드렸어요.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분명히 알람을 맞았는데 일어나니 7시예요. 속상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장은 그렇게 5일간의 거룩한 도전을 했고, 금요일 목장모임을 하며 특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5명 전원 특새를 드림(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예배는 못 갔지만 실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특새를 드렸음이 너무너무 감사. 감사.

예전엔 ‘드리다 말다, 아침에 했다 저녁에 했다’ 하며 우왕좌왕했는데 이번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실시간으로도 특새를 드림에 스스로 대견해하고 뿌듯해하는 자매님.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깊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 흘리는 자매님. 딸과 함께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드렸고 딸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자매님. 이번에는 5일 다 드리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며 은혜의 시간, 감사하다는 집사님.

비록 현장예배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5명 전원 모두 특새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며 눈물 흘리며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함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멀고 젊은 엄마들은 어린 자녀들 챙기느라, 또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예배는 못 드렸지만 이렇게라도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건강한 교회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저뿐만 아니라 목장식구들이 예수님의 통곡하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하심에 감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 내려고 애쓰게 하심에 감사.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귀한 목장식구들과 특새를 드리고 나누고 함께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자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에는 목장식구들과 함께 현장예배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김정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7)

하나님의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주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의 모습 속에도,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 무리 속에도, 주님을 좋아라 따르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매섭게 돌아선 군중들 무리 속에도 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하길 주저하면서 나의 죄는 용서 받길 원하는 위선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죄인의 무리 속에도 제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새벽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 되어 영영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무시했던 죄도 회개하며 조금 커서는 영적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근심케 하였던 죄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프나 나를 부인하지 못해 괴로운 때 감히 용서의 권한도 없으면서 용서한다고 쉽게 생각한 것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릴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용서를 깊이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주님의 용서 가운데 쉼과 안식, 자유와 위안을 얻습니다.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음도,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성장과 변화, 겸손과 기쁨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어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할렐루야!'로, '감사!'로 반응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울어 줄 수 있는 주님 닮아 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구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새벽예배

이유

푸른목자를 섬기고 있는 14살 이유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 새벽예배를 완주했는데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많이 부족했던 제가 겨울수련회 때 응답을 받고 목사님과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새벽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금요일에도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4시마다 깨워 주시더라고요. 학교에 갈 땐 8시에도 피곤하고 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저인데 4시에 깨어난다니, 새벽에 준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저번 겨울 수련회 때 저의 대표기도 제목이 ‘취장암 말기이신 이모할머니가 회복할 수 있도록’과 ‘불교이신 외할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저녁집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에 다녀오고 일주일 뒤에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모할머니께서 암투병하신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일에 부르던 찬양 중에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계획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솔직히 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었는데, 목요일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원망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인데 나는 또 예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 완주한 새벽예배인데도 제가 예수님께 지었던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초등촌 동생들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외할머니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특새는 첫날이 힘들지만 다음 날은 이미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다!

현경하

하나님께서서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난주 금요일 느헤미야기도회 때부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일 느헤미야의 예배에 나아가는 저의 마음은 여전한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설교를 통해 제가 그 당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 보겠다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성은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현재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돌아가는 것(!), 물질과 권력,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앞에 가지고 와 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기도 중 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려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가 느끼고 있는 딱 그 정도야. 선이 분명히 존재해. 나로 채우렴. 나만이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너의 외로움 공허함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울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또 한번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선 현재 지어져 있는 성벽을 전부 부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 ‘삶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야 하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비통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아시고, 다 하실 거면서 왜 심한 통곡으로 나사로의 죽음에 울고 계셨는가?” 그 답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괴로운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셨고, 나사로를 위해 우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동일하게 통곡하고 계심을 들어 본 적 있는가?”

그 질문에 저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향해 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 생각나서인지, 누가 나를 위해 울어 줄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통곡하심만큼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주일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새벽기도 나가는 날은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π π). 하지만, 하루 나간 새벽기도에서 담임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설교와 기도회를 드리고 오면 다음 날은 이미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묵상하며 고난주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이미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첫마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수난 사건 자체가 내 존재를 위한 것임에도, 십자가는 버려진 장소였고, 멸시받는 장소였습니다. 숨 내뿜기 어려움 속에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온몸으로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심을 보여 주신 예수님! 나의 무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조차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저는 용서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하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용기를 얻어 용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원수를 용서하는 데까지가 제자의 마지막 관문이라면, 제가 그 관문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이 나눔을 쓰는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적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47).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 바라보겠습니다! **지구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구원!

김예리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친정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굳어져 가는 폐가 급격히 나빠져 자가 호흡이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도 펄펄 나고 호흡이 어려워

결국 목에 구멍을 내어 인공호흡기를 끼셨다고 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때때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역정을 내거나 완강히 거부하셨던 터라 다음 또 다음을 기약하곤 했는데, 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급하셨는지 즐기치게 예배와 찬양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설교, 느헤미야와 향수예배, 고난주간 특새를 통해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초지일관, 기승전결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일을 하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꺾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믿으라. 불쌍히 여기시며 울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바로 지금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 죄 가운데 짓눌려 신음하는 죄인들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

또한 제가 섬기고 속해 있는 모든 곳의 분들이, 심지어 요양원에서 흐릿한 기억을 붙들고 계시는 시아버지까지 저희 아버지 한 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까지 오늘 새벽에 구원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것 역시 우리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한 영혼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구원을 위한 집중 기도를 받게 하시니 어찌나 큰 은혜인지요. 저도 어제 허락된 5분간의 면회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전할 것입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 구원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같이 새 생명 얻고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단 하루라도 죄에서 해방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지구촌**

손주의 목장에서 건 달란트 획득하기

이화수

주일 4월 2일 저녁, 손주는 자신도 새벽기도 나갈 거라고 선포했다.

가족들이 그냥 하는 소리로 흘러들자 손주는 새벽기도 출석하고 달란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역도 멀고(경기도 광주) 학교도 가야 하고 피곤해서 견딜 수 있겠는가 문자, 할 수 있다고 꼭 깨우라고 한다.

월요일 새벽 3시 40분. 혹시나 하고 아이를 깨우자 벌떡 일어나 준비를 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부린다. 양말이 불편하고 옷이 불편하다며 온갖 트집을 잡는다.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손주—.

교회에 도착하자 불평은 사라지고 손주는 앞자리에 앉아야 목사님이 잘 보인다고며 성큼성큼 앞으로 가 자리를 잡는다. 예배 시간 동안 탄짓을 하는 것 같으나 중간중간 어려운 목사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냐며 물어 오기도 한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며 귀가하는 소중한 첫 새벽예배의 날이었다.

화요일, 수요일, 동일한 실랑이가 벌어진다. 아이의 눈 밑에 생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는 듯한 안타까움에 '나 혼자 가야 하나' 생각도 한다. 할미의 마음을 알아챈 듯 아이는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준비하며 나선다. 할미는 “주여~”를 입 밖으로 흘러보내며 “나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라고 아뢴다. 시작은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 아이는 행복해하며 끝말잇기를 한다.

목요일 아침,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신다. 아이는 깨우는 순간부터 불평 없이 아주 순적하게 예배 갈 준비를 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잘 준비해 주어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며 폭풍 칭찬을 하여 주었다.

금요일 아침,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이를 깨웠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힘들어한다. 아차 싶은 마음.



우려는 빛나가지 않았다. 안 가겠단다. 난감함. 달래면서 슬슬 마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에 시동을 걸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이모와 함께 나온다.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스티커를 붙이고 선물도 받고 사진도 한 컷, 예배도 은혜롭게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저녁에 성만찬도 참석하겠다고 꼭 데리고 가라고 한다.

비록 달란트를 받았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새벽예배 참석이지만 이것이 아이의 믿음을 한 발 더 내딛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생이 있어서 힘든 엄마 대신 할미를 따라 고난 주간 특재를 완주한 손주가 미래의 믿음의 기둥으로 잘 자라기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구촌**

◎소리나 < 예수님의 가상철언의 네 번째 '버림받음' 말씀에 우리의 묵상 >

1. 십자가상에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죄의 권세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아야합니다.

2.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어!

3.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소외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 이 세상에 그런 감정 안 느낌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움, 배신, 아픔을 겪습니다.
- 나의 고통과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

4.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외침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 성경은 아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인가구의 세상... 더욱 고독해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물어줄까요? =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난 가운데 있을때의 우리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외쳐주신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을 입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외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 새벽예배

이보영

저희 목장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번 ‘특새’는 겨울 청소년 수련회에서 가졌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목장 나눔 시간에 4명의 아이가 각자 새 친구 전도하기, 20살 되면 교육 목장 목자 하기, 금요 느헤미야 나가기 그리고 **특별 새벽예배** 참석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도하고 목자 되는 건 그래 너희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금요 느헤미야? 그래 뭐 우리 아이 덕분에 매주 잘 나가야겠네, 그런데…… 특별 새벽예배? 거의 10년간 완주한 적이 없는데, 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등등 질문하는 가운데 그렇게 특별 새벽예배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던 코로나가 하필 임신 7개월, 특새 2주 전에 걸리고 이후 후유증으로 하루 하루 너무 괴로웠습니다. 두통과 속 울렁거림, 불면증까지 찾아와 제 입에선 불평과 불만이 이어졌고 특새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제발 말해 주길 바랐습니다. ‘**목자님 쉽지 않겠어요. 저희끼리 할게요!**’ 그러나 아이들은 “**목자님 저 새벽예배 갈 수 있게 깨워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 목자님도 못 일어날 수 있으니 스스로 일어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참 지금 글을 쓰는 제가 봐도 별로인 목자입니다). 아이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하고 목자인 저는 부담 반, 타의(아이들을 위해서) 반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월요일 새벽,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을 만났는데 잠이 확 깨면서 새벽예배 말씀이 들렸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가 했지만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예배 이후부터 후유증이 사라졌고 피곤은 했지만 몸과 마음이 가벼웠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저를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너 새벽예배가 체질인 거 같아”라고 할 정도로 한 주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역지로 시작된 새벽예배는 자발적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떠했는지요. 14살 두 친구가 서로를 깨워 주고 의지하며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목자인 저보다 더 바쁜 날을 보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원, 숙제, 과외를 마치고 나면

11시 넘어서야 잘 수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수요일에 둘 다 연락이 안 되어 ‘흠, 쉽지 않지. 오늘 좀 자고 목, 금 나머지 나오면 되겠다. 비도 오고, 그래, 오늘 충전하라고 깨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4시 50분에 ‘목자님 저 지금 일어났어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새벽,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해맑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서 멍하니 있다가 필기 늦게 해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과외 끝나고 12시 넘어서 자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밝은 미소와는 반대되는 아이들의 일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대단해, 솔직히 오늘은 너희들 안 나오는 줄 알았어”라고 하니 “목자님 저희 내기했어요. 빠지는 사람이 마라탕 사기로!”라고 하더군요. 하하하, 마라탕이 뭘지 새벽예배를 완주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자님도 그 내기에 끼워 줘. 너희가 완주하면 그 마라탕 목자님이 살게!” 말했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마라탕을 사 주게 되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이 새벽 완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한 아이들이 있었기에 새벽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은 한 주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교육목장에 목자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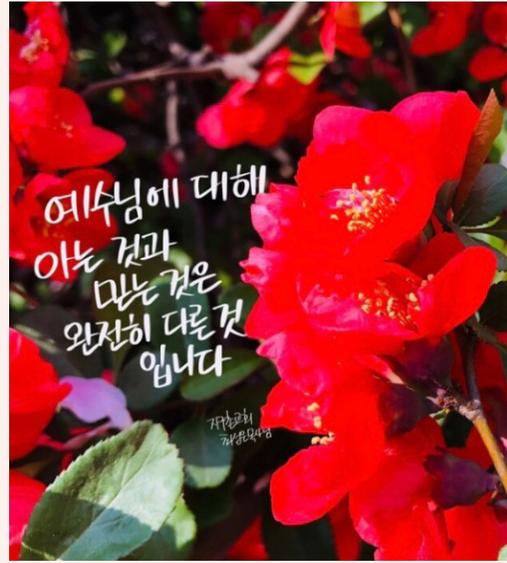
결단의 고난

박윤혜

집 근처의 기독교대학 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2 큰딸이 이번 특새를 꼭 참석하고 싶다면

일주일간 통학 신청을 부탁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허락해 주면 지구촌교회 새벽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 학교 새벽예배를 또 드린다는 겁니다.

뚜벅이 가정인지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학교 새벽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인 동생까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것 같고 학교생활도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컸습니다. 그래도 기특한 결단이기에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김푸른

첫째 날,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부르고 서둘러 내려와 버스정거장을 향하고 있는데 이마트 사거리에서 학교로 가는 노선의 버스 2대가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학교 새벽예배는 지각했고, 큰딸은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려야하나?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스레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엄마인 것이 부끄러워지면서 마음속의 여러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며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믿음의 결단에는 여러 방해가 있어! 내일은 5분 더 일찍 내려오자!”

둘째 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목사님의 명언을 설교 노트에 꼭꼭 눌러 적고 옆에 있는 딸을 안아 주며 기도하는데 몸이 좀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학교 가면 혹시 모르니 열을 꼭 재 보라고 말하며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학교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예배 시간에도 여유 있게 도착해서 한결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어제 마주한 불평의 상황들을 이겨 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채울 무렵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열이 38도가 넘어서 병원에 다녀오래!”

아뵐싸! 한 가지 방해를 극복하니 또 다른 방해가 다가오다니!

딸과 함께 병원에서 만나 진료와 코로나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2시간을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필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속절없이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침착하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건강을 뒤흔들어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시간이 될 거야!”

셋째 날, 어제 조퇴하고 집에서 푹 쉬고난 뒤 한결 가쁜 모습으로 새벽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설교 노트도 열심히 쓰며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봄비를 맞으며 학교로 향하는 길, 갑자기 딸이 교복 자켓도 약도 집에 두고 왔다고 갖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은 목자모임도 가야 해서 분주한 아침이기도 하지만 뚜벅이에게 비 오는 날 이동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하기에 육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확장된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랑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작은 일에 육신의 딸조차 온전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마주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넷째 날, 목요일쯤 되니 피곤함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준비가 좀 늦어져 셔틀 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4시 21분에 타야 하는데 4시 21분 정각에 도착해 보니 셔틀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셔틀버스를 놓친 것 같아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가까운 곳에 택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운행하는 버스도 없고, 비는 계속 내리고, 날씨는 갑자기 추워져서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뒤늦게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평탄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이렇게 두 딸과 함께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추운 새벽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삶의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을 품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내일과 성금요일 주의 만찬, 남은 두 번의 예배에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결단하며 기대합니다. 부족한 엄마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두 딸에게도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축구 대신 특새

김경숙

특새를 정말 사랑했던 첫째가, 이번 특새는 시작 전부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학년이 되면서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축구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특새를 참석하려면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함을 알기에, 축구를 할 수 없는 5일이 못내 아쉬운가 봅니다.

첫째의 망설임을 보면서, 우리 첫째가 드디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정도로 컸구나 싶어, 시작 전부터 감사했습니다. 예배와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 사이에서 아이의 맘을 흔들리게 하는 건 사탄이겠지요. 사탄이 경계하고 방해한다는 건, 그만큼 아이의 믿음이 커졌다는 반증이니 감사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일이니, 어릴 때부터 연단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감사하게도 세 아이가 모두 스스로 일어나 같이 교회로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4시 30분쯤 교회에 도착했는데, 첫째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고 불평을 합니다. 차에서 좀 더 자다가 5시에 예배당으로 가자고 합니다.

늦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저와 아이들의 암묵적 룰인데 말입니다. 간신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는 했지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둘째 날은 더 일찍 나와서 4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7층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차 앞을 지나가는 분들을 잘 지켜보라 말하니, 아이들 얼굴에 수많은 물음표가 가득 합니다. 곧이어 다른 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신 분들이 예배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뛰어가는 사람,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 모두가 서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 우리 전도사님이시다!” “우리 목사님이시다!” “어……무대에서 찬양하신 분이데, 누구지?”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얼굴의 전도사님, 목사님, 그 ‘누구’인 분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신나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예배 시작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빨리 가시는 걸까?
왜 서두르시는 걸까?”

“우리에게 줄 과자를 준비하시려고?”

“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시려고?”

“너희들 말이 다 맞아.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는 거야. 우리는 4시 30분도 너무
일찍 왔다고 불평하지만, 저분들은 더 일찍 오셨는데도, 우리를 위해 저렇게 바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감사한 마음으로……”라고 첫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희 첫째는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특새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매일 그날의 특새에서 감사한 일, 느낀 점 등을 스스로 얘기해 줍니다.

“엄마, 전도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셔서 기뻐어.”

“엄마, 본당에 들어갈 때 목사님들이 주욱 서 계시잖아. 목사님들이 먼저 인사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다리가 너무 아프실 거 같아.”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슬펐어.”

“엄마, 비 오는 데 주차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추울 것 같아.”

……

특새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이 아이들의 소감 발표로 떠들썩합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저
희 삼 남매는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위해 섬겨 주시는 분들을 찾아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 모
든 감사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 드릴 줄도 아는 예배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엄마에게 말
하던 저 소감문들을, 주님께 직접 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꽉 채운, 특별한 5일간의 새벽기도회를 맞이하게 해 주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
니다. 예배의 자리를 위해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구촌**

만남—두물머리



손병덕 목사

구리 지구촌교회 채플

구리에서 차로 40분 남짓하게 가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자연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 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강변의 늘어진 수양버들, 수많은 들꽃과 풀들, 그리고 맑은 물속에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듯 보이는 곳입니다.



두물머리에서는 간혹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남한강에서 흐르는 강물과 북한강에서 흐르는 강물의 색깔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철 같은 비가 올 때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두 강물이 흐르다가 만날 때 섞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물의 색깔이 평행선을 이룬 채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한동안 흐르다 보면 물의 색깔이 조금씩 희석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하나의 수원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의 강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개의



강물이 두물머리라는 곳에서 만나 부딪히고 서로 섞이면서 어느새 하나의 큰 강 '한강'이 되어 남양주를 흐르고 구리와 서울을 흘러 서해로, 마침내 바닷물과도 섞여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은 그렇게 흐르는 동안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고 수많은 나무와 동물들에게도 물을 공급하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물머리에서 두 개의 강물이 만나서 섞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마치 부부가 된 남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어느 날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로 만나게 됩니다. 만남의 과정을 지나면서 서서히 알아 가고 정도 들고 갈등도 겪게 됩니다. 마침내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된 후 하나의 큰 줄기 강물처럼 시대 속에 유유히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두 개의 강물의 색깔이 서로 달랐으나 부딪히고 섞이고 섞여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온전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서로 다른 색깔로 인해 다양하고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성격, 취미, 음식, 재정, 비전, 직업, 자녀교육 등, 하나하나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마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강물이 서로를 흡수하고 흡수되고 마침내 섞이듯이 부부도 서로에게 흡수되고 서로를 수용하다 보면 어느새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구리 지구촌교회 채플에 작년 6월 첫 주부터 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했으니 이제 한 돌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하여 울고 웃고 기쁨 가운데 유유히 흐르며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구리 지구촌 지체들도 지금까지 흘러

은 문화와 색깔을 가지고 담임 목회자인 저와 만나고 서로 섞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수용하고 수용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로 간에 보듬어 주다 보니 일년 여의 시간이 수일같이 흐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채플에 출석하는 교우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관내인 구리에서부터 서울과 남양주에서 출석하는 교우, 그리고 최근에는 의정부와 포천, 하남에서 출석하시는 교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교단도 다양합니다. 침례 교단에서 오신 분,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순복음에서, 성결교단 등, 다양한 교단에서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각각 교단도 다르고 출신 교회도 다르고 사는 지역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릅니다. 전도되어 처음 교회 출석하는 교인부터 전입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갓난 아기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이는 마치 두물머리와도 같은 구리 지구촌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강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섞이고 섞여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거대한 영적인 하나의(한강) 강, 은혜의 강, 생명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 서울을 흐르면서 지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적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고 심지어 죽어 있는 심령마다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마심으로 온 바다를 덮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말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9).

아멘, 아멘, 아멘. **지구촌**

OPEN 표시는 '열린 지면'으로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채택되신 분은 MD프라자 705호 역사자료문서선교팀으로 방문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의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지구촌비전 원고접수 게시판'에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편집부

거미줄 그네



간밤에 내린 보슬비가 거미줄을 만나 구슬이 되었습니다.
조롱조롱 거미줄에 매달린 물구슬들 거미줄 그네를 타며 즐거워합니다.
애써 그물 집을 만든 거미만 홀로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는군요.
거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바람하고 햇빛에게 말해 두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보기에 참 좋습니다. **지구촌**

글·사진 | 오도연 장로

목장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심다은A 집사

분당3지구 이매8목장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 MBTI 성격유형 중 극강의 I 성향의 저는 남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이 힘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목장에 소속되기를 몇 년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아이들의 영아촌 목자님이셨던 박경애 목자님의 인도를 받고 겨우 목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어색했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던 담임목사님 말씀이 마음 한구석을 찢어서 일단 출석만이라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참석하기 전 몇 년간 저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이에게 심한 야경증이 있어 밤마다 소리 지르며 깨는 날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저도 불면증이 심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 아이가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혈뇨가 반복적으로 나와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몇 개월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신장과 관련된 희귀 난치병이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증상 발현을 늦추기 위한 약을 먹이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가려 했던 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도 심해져 우울감이 심해지고 좋지 않은 생각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혼자 짊어졌던 저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선배이신 목자님과 목장원 분들께서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쁘게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시는 모습에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건강검진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흔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때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간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 억울함,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결과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저와 더 가까이 있고 싶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목장 및 교역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녀, 건강, 직장,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의 삶에 사랑과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분노,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것이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왜 나누고 있지 못하는지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감사하지 못한 점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교회 공동체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성격상 혼자 상황과 문제에 깊게 매몰된 채 헤어 나오지 못했을 텐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목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암이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고 우울증 증상도 교회 글로벌 상담소를 통해 좋은 전문가 분을 만나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문제 내 자녀,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저의 시선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리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교회 공동체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나 아픈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육아와 경력단절로 고민하는 엄마들 등 주변의 이웃들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도 약이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있어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경증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새벽에 깨는 날이 많은데 그때마다 아이가 새벽기도에 가자고 졸라서 새벽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담임목사님 설교 중에 생로병사의 문제는 인간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본질의 문제이고 죄인인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때에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이런 신앙의 한 모습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애통해 하며 중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저의 알팍한 생각과 지식으로 막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삶에 당면한 어려움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숟가락을 하나님께 넘겨 드리기

-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 소감문



박진주

분당 3지구

육아 동지인 교회의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전처럼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로가 비슷한 처지에 있기에 어찌 개선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알려 주는 이도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 시기에 마더와이즈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고 신앙도, 육아도, 나 자신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전보다는 좀 더 비워지고 또 채워진 마음으로 소감문까지 작성하는 나를 마주하고 있다.

수강 전에는 교육 명 그대로 현명한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다.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길을 알려 주지만 그런 엄마는 지금 상태에서 더 채우고 배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듯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쓴 뿌리와 수많은 생각들로 얽힌 가지들을 잘라 내고 비워 내는 일이 먼저였다. 처음엔 문제를 직면하는 게 힘들었다. 지난날의 상처와 문제를 들춰 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처음 보는 자매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역시 내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이런 소심함을 다 아시고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

'마더링 스킬'을 통해 조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 시간에 내가 가진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털어놓도록 하셨다. 유년 시절의 상처,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아이를 키우면서 들여다보게 된 나의 밑바닥 등 그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 본 적 없는, 혼자 간직한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나니 부끄러움이나 후회보다는 후련함이 느껴졌다. 같은 조원의 자매들도 자기 문제의 뿌리를 돌아

보고 스스로 고백하며 때로는 눈물로, 공감의 꼬덕임으로 서로 격려해 주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 구절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특별히 우리 조의 조장님은 음악치료사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장님이 마더링 스킬 시간을 리드할 때는 꼭 집단치료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회차를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로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되었는데 특히 5주 차 '십자가의 형상'이라는 단원에서 그에 대한 답을 보여 주셨다. 자기 육신에 갇힌 엄마라면 자녀의 진로를,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나로 가득한 과거의 육신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했기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자녀들에게 인생의 계획을 주셨다', '때가 되면 자녀에게 떠먹이는 일은 그 만두고 숟가락을 넘겨 주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나누며,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직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이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모두 동감하였다.

한 번 마더와이즈를 수강한 것으로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의에 나를 부르셨고 복잡한 내면으로 가득 찼던 가족 부대를 바라보고 비우도록 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 부대를 입혀 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한 자녀에게 들고 있는 숟가락을 하나님께 넘겨 드리듯이 내 인생의 숟가락도 하나님께 넘겨 드리려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지혜로운 엄마로 성장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다. **지구촌**



제 삶에 뿌려진 목자라는 씨앗

- 청년1지구 2023 목장배가 소감문



조한나 자매 노아촌 에녹마을 예수소망목장

푸르른 새싹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저의 삶에도 목자라는 새로운 씨앗을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목자의 자리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듯,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너무도 사랑하는 아빠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아바랑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시니 저희 아빠도 살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누구보다 뜨겁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상실감은 저의 작은 신앙을 흔들 만큼 강력했고 제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매순간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처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함께하셨으며, 함께 울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나와 같이 혹은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저는 지금 지구촌교회 최고의 가치인 목자로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제게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습 그대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목장의 주인 되실 때, 함께 하는 영혼들이 부활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숙되어 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목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소망목장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목장을 배가하며

- 청년지구 2023 목장배가 소감문



이화평 형제 마가촌 예그랑마을 위드갯목장

“배가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대학지구에서 부목자, 목자로 섬기면서 항상 든 생각은 ‘청년지구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예배만 드려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섬겼고 지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목자를 내려놓고, 목장 참석은커녕 온라인이라는 좋은 핑계를 무기 삼아 ‘나는 지쳤다, 나는 충분히 섬겼다’라고 합리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감사함과 사랑이 사라져 있었 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주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시의적절하게 ‘2022 블레싱 제주’를 통해 제주도 국내전도로 보내셨고, 청년지구 예수제자훈련 수료, 목장에서의 순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매 순간 내 삶을 사랑으로 채워 주셨고, 내가 외롭지 않게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매 순간 내 마음을 공감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저에게는 ‘상황을 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 하는 것을 쉬지 않을게요’라는 결단이 생겼고, 결단하는 순간 목장에서는 배가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닌,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만 공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진짜 공감하고 싶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목장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위드갯’(With God)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또 승리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장 배가의 소감과 저의 간증을 이 글에 다 담을 수 없어 아쉽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예수님만 바라는 우린 아름예배 공동체입니다.



양원석A 서리집사

아름 청년마을 마을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아름예배 공동체는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다운증후군, 뇌병변장애 등 장애인들과 이들을 돌보는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공동체입니다. 2011년, 이러한 공동체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였던 저는 “차량 운전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목사부터 하시라”는 담당 전도사님의 말씀에 얼떨결에 아름학교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긴 지도 13년, 아마도 저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 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6년 전 인생의 큰 위기를 지날 때도 아름 예배와 우리 친구들을 통해 위로받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교회·예배를 떠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 낼 수 있었으며 지금은 아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른 이들보다 외부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한 주에 한 번 현장에서 드리는 아름예배는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 현장 예배에 요즘 들어 아름 친구들로 더욱 가득한 예배실을 보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재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본인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 아름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우리 아름 공동체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과 감사와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Everything is on God's Hands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Elisa Juye Park (박주예)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so I naturally became a Christian.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and tried to do bible studies every week. But as I went into middle school I felt I was doing these things simply because I grew up that way, rather than my relationship with God. I would naturally not concentrate during worship, and would question about the existence of God. During the pandemic, when worships were switched online, it was harder for me to share these thoughts and hesitations that I had. This made me doubt God even more, and it even got to a point where I decided not to go to church.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가고 성경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제가 가진 이러한 생각과 망설임을 공유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Nonetheless, I always saw my mom go to church and worship weekly. I think having a person like mom, who constantly told me about the word of God, I slowly realized in my unconscious mind, that the Lord was with me. However after with the pandemic eased and I went back to church, I still wasn't sure about my relationship between me and God. I was a wandering Christi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가 매주 교회에 가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항상 보았습니다.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무의식중에 서서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완화되고 교회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황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Soon after, I started living in highschool dormitory.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without my family, what I eventually found was God. Living alone, I felt vulnerable so I and prayed and repented to God. When the world abandoned me and I felt like I was alone, the Lord held my hand and comforted me. I was able to be reborn as a new Christian because of the Lord's comfort. I also started meditating the word of God. I thought before after hearing what someone else has meditated I was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However, I confidently spend my time with God and feel m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God growing. Soon after I started worshipping with my school friends as a Christian club activity at school. At first, I was self conscious because of the eyes of the people around me. But I now joined the welcome team because I learned that worshipping God with the talents he gave me makes him the happiest. I am also happy to meet a really good youth cell group and a community where we can pray and share our faith together. After wandering for years, I was reborn and was baptized on December 18th 2022. Also through this year's retreat, the Lord came to me passionately and strengthened my relationship with him.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결국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연약함을 느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리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새신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저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친구들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새 친구반 (Welcome Team)에 합류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좋은 청년 셀 그룹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수년간 방황하다가 거듭나서 2022년 12월 18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올해 수련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주님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셨습니다.

Lord, thank you for not letting go of me and forgiving sinners like me. Thank you for loving me, using me, and continuing to give me opportunities. I love you, God

주님,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구촌**

Worship Guide

Ask any questions on English Worship Serviceto Global cell group center.

T 031-710-5924
MD Plaza 8-805

예배안내

영어 예배부에 대한 문의는 글로벌목장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T. 031-710-5924
지구촌 선교센터(MD프라자)
8층 805호

Jiguchon Culture Center

2023 Summer

**무더운 여름... 마음이 시원해지는 수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기간
2023. 5.7(일) ~ 28(일)

강의기간
2023. 6.5(월) ~ 8.25(수)



◀◀ 수강신청 QR



지구촌평생교육원
LifeLong Education Center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

글로벌목장 센터는 4월 9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여 각 언어별 예배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어 예배부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성도들이 준비해 온 각양각색의 풍성하고 푸짐한 음식을 통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머내공원에서 다양한 게임과 활동 및 에그 헌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즐거운 부활절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 예배부에서는 편지 쓰기과 기도를 통해 하나되는 특별한 활동 및 체험을 진행했고 모두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어 예배부와 몽골어 예배부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성도들이 준비해 온 각국의 전통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쁨과 교제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어 예배부



몽골어 예배부

이주자 예배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장별 특별 찬양의 순서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며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행사로 부활절 탁구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탁구 실력보다 다양한 국가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단합하며 하나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탁구 대회를 통해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웃고 즐거운 하나되는 시간을 보냈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끼리 서로 웃으며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는 귀한 하나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로벌목장 소속 외국인 성도들이 각자 속한 예배부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통해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부활주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2023. 4. 9



분당1부 주섬감찬양대



분당2부 주영광찬양대



분당3부 주은혜찬양대



수지1부 주능력찬양대

주일 1부(8시)

주능력 찬양대(수지)	주섬김 찬양대(분당)
1 우리를 구원할자	십자가 이야기
2 기적	그를 못박으라
3 십자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4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울리는 노래, 할렐루야!
5 부활 그 기적	

주일 2부(10시)

주사랑 찬양대(수지)	주영광 찬양대(분당)
1 떡과 잔을 나누며	주가 부활하셨다
2 한량없는 주의 사랑	힘한 십자가 능력있네
3 십자가로 가까이	모퉁이 들
4 참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일 3부(12시)

주향한 찬양대(수지)	주은혜 찬양대(분당)
1 살아계신 주	우리의 어두운 눈이
2 겹세마네의 기도	오 크신 사랑
3 힘한 십자가 능력있네	무덤에 머물러
4 무덤에 머물러	I AM

경기대 주일 2부, 3부(10시, 12시)

약속의 땅 & 축복의 땅 연합 찬양대	
1 기억하라	
2 Via dolorosa	
3 주 예수님 날 위해	
4 주 부활 하셨네	

주일 4부(2시)

수지 경배와 찬양팀	분당 경배와 찬양팀
1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마라톤타
2 주의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일 5부(4시)

수지대학합주팀	홀리웨이브 찬양대
1 Amazing Grace	예수 나를 위하여
2 어찌하여야	Praise His Holy Name!



MD 선교센터에 가득했던 부활의 기쁨!

해외선교부

부활절을 앞둔 4월의 어느 날, MD 프라자 선교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상담소, 글로벌목장사역센터, 글로벌 홈스쿨링, 해외 선교부(이하 선교센터 부서들)는 함께 모여 MD 프라자 건물에 입주 중인 병원과 학원, 음식점 등에 부활절의 의미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선물과 교회 소개 자료들을 나누었던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의뢰 제작한 부활절 슈가 파우더 케이크와 계란, 지구촌 비전 책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뒤, MD 프라자 선교센터 내 점포들을 방문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서먹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선물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시작하며 느낀 점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달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부활절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감격이 몇 배는 커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부활의 기쁨 또한 나눠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 주일을 이틀 앞둔 4월 7일 금요일. 이 날 MD 프라자 빌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구촌**

지구촌장학회



4월 23일, 젊은이 목장센터와 복지선교부 지구촌장학회는 1부에서 3부예배를 통해 상반기 교내, 교외, 다니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3N 3G의 비전 중 Godly Leader를 세우는 사역의 일환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인재장학생 10명, 대외장학생 20명, 교내장학생 55명, 도합 85명의 학생에게 지구촌교회의 귀한 마음을 담아 1억 2천 9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세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하나님 아버지

- 마태복음 6:9



송기성 전도사

교육훈련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9).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한다면, 종교와 믿음을 떠나 인간은 모두 기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비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관계성에서 출발합니다.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때를 기억합니다. 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웅얼이하다가 어느 순간 저를 쳐다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아빠’라고 부른 것 같진 않았지만, ‘아빠’라고 불렀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가장 감격스러워하실 때가 언제일까? 아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감격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과 공원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님과 공원을 걸으면서, 한참을 앞으로 뛰어갔다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앞으로 뛰어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아빠!” 하고 불렀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짜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진짜 아들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시절, 이사야 53장 5절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에 크게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소리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저를 부르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가움에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깁니다.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 아빠!” 하고 다급하게 저를 부릅니다. 조그마한 탁자 위에서 뛰어놀다가 탁자가 부러지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아빠” 하고 부르며 조용히 저를 찾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찾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제일 많이 찾는 곳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찾았을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는 것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취학 자녀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삶을 살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갑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외할머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윤채윤

분당 소년촌 1마을 5학년 7반

1. 외할머니는 내게 ‘엄마’와도 같은 분이시다.

1~2살 때부터 말벗이 아닌 부모님을 대신해 키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면 잘 받아 주시고 조언도 성심껏 많이 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2. 할머니는 나의 ‘전도자’이시다.

왜냐하면, 9살 전까지는 교회에 대부분 놀러 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잘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에 좋은 지구촌교회를 알려 주셔서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3. 할머니는 나의 ‘눈물 버튼’이시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할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펄펄 울게 된다. 엄마께서는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4. 할머니는 ‘감사함’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감사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키워 주신 감사함, 전도해 주신 감사함, 챙겨 주시는 감사함, 고민을 들어 주시는 감사함, 투덜대거나 짜증을 내도 언제나 챙겨 주시는 감사함 등등.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5. 할머니는 우리 집 ‘요리사’이시다.

할머니의 요리는 항상 맛이 있기 때문이다. 찌개, 볶음밥, 김치, 카레, 튀김 등을 너무 맛있게 해 주신다. 특히 김치찌개와 카레가 너무 맛이 있다.

6. 마지막으로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엄마보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지구촌



손주를 돌보며 할배가 성경에서 깨달은 두 가지



박흥열 장로

수지4지구, 따뜻한목장

저와 제 아내는 인근의 큰딸네 집을 드나들면서 두 손녀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큰손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 손녀는 초등 3학년이니 딸이 출산 휴직했던 3년 여를 제외하고는 주중의 낮 시간 대부분을 손주들과 함께 보낸 셈이죠. 저야 물론 제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에 보조 역할만을 해 오고 있지만, 두 손녀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손주를 볼 때마다 무한 샘솟는 사랑과 애정, 그리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감입니다. 제가 젊어서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느껴 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도 아니고 그 자식이 낳은 자식 — 한 다리 건너 태어난 손주에게 왜 이런 감정이 생겨날까요? 지극히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인지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손주(grandchildren)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유일하게 잠언 17장 6절에 손주는 '노인의 면류관(the crown of the aged)'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손주 사랑의 뜻은 아닌 듯 보입니다.

제 나름의 첫 번째 깨달음은 이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노년 늘그막 인생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는 말이 있듯이, 손주 사랑 계명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노후의 삶 동안 무제한의 기쁨을 얻음은 물론 손주를 사랑으로 잘 키워 후세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데 기여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요?

요즘 같은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님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소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주 돌보면서 얻은 두 번째 깨달음은 인간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아이들이나 그러하듯 두 손녀가 네댓 살 되면서부터는 서로 ‘내 꺼 지키기’와 ‘너 때문이야!’라는 명제가 그들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구한 날 싸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성으로 대표된 어린 아이들이 왜 저렇까 하는 깊은 회의가 생기곤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성악설·성선설이 소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 손녀가 10살이 넘어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배려심도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 말하자면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9:7).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27).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수단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증거가 어린아이들의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창조 섭리에 따라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엄마의 보호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에 배고프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 ‘째계’ 울어야 하고 주변의 경쟁자들로부터 ‘내 꺼’를 확실하게 챙겨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10살이 되면서 철이 들어가고 양보와 배려심, 온유와 긍휼지심이 생겨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 나름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으로 인간에게 심어진 DNA가 생육 번성 본능을 억제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육 번성 본능이 억제되지 못한다면 탐욕의 죄 노예가 되어 우리 사회는 악의 소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가 될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힘들고 불편한 일도 적지 않지만 그때뿐 — 보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로부터 솟아나는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니 어찌하랴! 이상의 내용은 어떤 신학적 근거나 논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의 손주 돌봄 소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생 노년에 주시는 은혜를 송축합니다. **지구촌**

하나님!

저 오랜만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 수련회 소감문



박이안

12시 연합마을 중학교 3-2 목장

처음 간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겠다는 포부 넘치는 결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느낀 점에 대해 용기 내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수련회를 가게 되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저녁 집회 때, 저는 기도에 온전히 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기도해 보려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려고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주여 삼창'을 하고 나서도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려고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 하나 떠올렸지만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과거 수련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제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받았다는 사실에 눈물도 닦지 않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던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을 때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제 순수하고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되어 가면서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쌓여 갔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옆에서 소리 내며 울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며 '난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되지? 저 친구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난 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제 옆에 있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은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과 대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열심히 기도해서 꼭 은혜받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첫날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 때 저는 임우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다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하니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막고 제 목소리를 들으며 방언도 울부짓음도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 부모님께 거짓말한 일이나 친구들을 판단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상실감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제 삶을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죄를 인식하고 저의 잘못과 제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꼈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옛 수련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드릴 때도, 첫째 날 기도가 안 나와서 중보기도만 할 때도, 둘째 날 저의 죄를 고백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할 것입니다. 제가 슬플 때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제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긴 한데, 게으름과 분주함 등이 저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슬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하나님, 오랜만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을 잘 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친구들을 위해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저 자신이 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믿음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겨울 수련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도 재미있었고 정체성에 관한 강의도 재밌고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 것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늘 있을 것을 다짐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주일예배 '주 안에 우린 하나'



지난 4월 16일 주일예배는 장애인 주일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목)을 며칠 앞두고,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드려진 이번 예배에는 특별 순서(1-5부)와 수어 동시통역(2-5부)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른 모습을 지닌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 사역에 목자로 헌신하고자 많은 성도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역팀을 통해 더욱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엄정희 권사

분당 1지구 개포도곡 3목장

복합문화공간 북썬즈 독서모임의 북마스터로 일하며 지난 5년간 회원들과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북썬즈 독서클럽의 3월 선정 도서 《불편한 편의점》이 100만 부가 팔려 2022년 전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8개국에 판권을 계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왜 히트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연약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 주는 사랑으로 변화해 간다는 주제가 빛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은 친절과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책”,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 준 책” 등 독자들의 리뷰 하나하나가 책이 가진 힘을 말해 줍니다.



‘고시 폐인’, ‘작가 폐인’이라는 말처럼 연봉 천만 원의 무명작가 시절을 거쳐 어머니의 기도로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작가 김호연은 고난은 전공필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소설 《파우스터》에서 100쪽마다 한 사람씩 죽게 되는 스릴러를 쓰기도 했지만, 역시 선한 이웃을 주제로 한 선한 콘텐츠 책이 히트하더라도 말합니다.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던 어머니는 IMF 시절 아들을 어학연수 보내며 눈물에 젖은 성경 책과 그 속에 편지를 끼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큰 꿈을 갖기를 기도한다. 독일의 철학자 알프레드 델프는 ‘빵은 중요하다. 자유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무명작가로 긴 시간을 보낸 후 40세에 《망원동 부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십만 원의 빌라에 살면서 출판사에서 보내는 책을 빨리

읽고 헌책방에 판 돈으로 밥 한 끼를 먹곤 했다고 회고하는 저자는 어머니의 삶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루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는 점과 살아 숨 쉬는 듯한 리얼한 캐릭터, 마지막으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 옆 여사의 작은 이웃사랑이 노숙자 독고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비효과, 다시 말해 ‘독고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의 목숨을 잃게 한 독고는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하지만, 급기야 알코올성 치매가 되어 서울역 노숙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편의점 사장의 파우치를 찾아 주는 일을 계기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취직하며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말도 어눌한 독고이지만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시현도 독고로 인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교육하는 유튜버로 성공합니다. 시한부 작가 인경도 독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직장과 가정에서 찬밥신세가 되어 존재감을 잃은 샐러리맨 경만도 아내와 쌍둥이 딸과 함께 다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편의점 동료 오 여사도 힘들어하던 아들과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고, 편의점 사장 아들 민식도 어머니 옆 여사와 관계가 다시 나아집니다. 흥신소에서 일하던 전직 경찰 곽 씨도 흥신소 일을 거두고 독고의 후임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삶을 찾게 됩니다. 이런 독고를 보며, 독고의 마지막 고백처럼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라는 것,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 오시는 할머니들에게 물건을 들고 동행해 드리거나 배달을 가기라도 하면, 할머니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떡이며 파배기며 과일을 건네시곤 했다. 그들은 내게 할머니이자 어머니이자 고모이며 이모였다”라는 독고의 독백을 읽으며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열마간의 자유 시간’이라고 했던 프랑스 빈민의 아버지 피에르 신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가치가 요동하는 이 시대에 참된 가치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면접을 위해 얼굴에 투자해야 했다던 여대생 — 그녀는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했고, 그것이 그녀를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 보는가” 하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단단히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골밀도 높은 넓적다리로 딱 버텨 낼 수 있습니다.

괴로운 과거를 술로 잊으려다가 알코올성 치매를 얻어 노숙자가 돼 버린 독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기억을 되찾고 가족을 만나 사죄하러 대구로 갑니다. 떠나는 그를 전송하는 염 여사를 보며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의느님이 아니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해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고처럼 염 여사처럼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새 한 마리 다시 나무 위에 올려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한 줄을 품으며 살고 싶습니다. (의느님: ‘의사’와 ‘하느님’을 합성한 신조어 — 사회적 절대강자가 된 의사를 지칭함)

대구로 가는 기차가 한강 철교에 올랐을 때 독고는 말합니다. “사실 옮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이러한 독고의 변화는 염 여사의 작은 사랑의 물방울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독고의 역경도 한뫼하였습니다. 행복은 고통을 필요로 하는 까닭입니다.

책을 덮으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독고의 고백이자 저자의 제안을 내 삶에서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지구촌**

필자 소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북쌔즈 가족상담소 소장, 유튜브방송 <Dr.Duck 결혼예비학교> 진행, 도서출판 북쌔즈 대표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박종수 장로

분당 8지구

계절의 여왕 5월, 감미로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 속에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잎 더욱 짙어 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용솨음치는 신록의 계절이다.

5월의 '살아 용솨음치는 생명력', 역동하는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 깃들여 있으며, 그 생명력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 속에 있다. 다만 뱀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조상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환경과 신체의 변화도 시작되었고, 700~800세를 장수하던 인간의 수명도 노아 홍수 이후로 120세 전후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2022년 연말 즈음, 손안 가득 움켜쥔 처방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통풍 그리고 위염과 식도 역류 증상의 진단을 받았고, 처방받은 약 중에는 평생을 복용해야 하는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음이 우울해졌다. 건강이 훼손되어 무너진 내 모습, 점차적으로 주위 사람도 만나기 싫어졌다. 이제 막 환갑을 갓 넘은 Golden Age 초입, 이런 모습이 될 줄을 몰랐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노후의 삶도 불안해졌고 암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고 수개월 간 단식과 다이어트를 하며 노력해봤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체중과 처방약, 반복되는 건강상 위험 신호는 직장과 가정생활까지 위태롭게 했고 급기야 스트레스 과민성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이어졌다.

결국 2022년 12월 29일 그동안 여러 상황 때문에 미루어 왔던 건강기능제품을 처방약 대신에 복용하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초기 과정부터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아내의 의료적 관점의 질타와 부정적 입장으로 난관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절박함에 단호한 결단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3일, 일주일, 15일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넘어가면서 내 모습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갔다. 아내 그리고 주위 가까운 지인들까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목도했다. 두 달 보름 지날 즈음, 놀라운 체중 감량(-12.5kg, 체지방 -9.2%, 개인 측정 기준)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로 과민했던 정서적 상태도 안정되어 갔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외모 변화는 일종의 보너스,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2년 12월 29일부터 모든 처방약들을 보류하고 결단했던 것이 30대 초반의 건강 상태로 회복되고 유지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그 사실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관적 판단,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서너 차례의 혈압 검사와 혈액, 소변 검사 그리고 종합 건강 검진을 통해 데이터 수치로 회복된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피로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건강을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회복 사례는 개인적 체험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몸의 변화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몸속에 심어 넣으셨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세밀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과 《Clean》(알레한드로 용거/조진경 번역), 《잃어버린 영양소》(스티브 뉴전트 박사/이철원 의학박사 감수)를 통한 독서, 묵상을 통해 일부 알기 시작했다. 참고로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서재걸 박사의 저서도 이해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독소 즉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독소와 음식물 섭취와 환경을 통해 생기는 외부독소, 칼로리 과잉과 부족의 불균형적인 영양분포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 습관과 같은 3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이제 생존과도 직결된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창조주가 만드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도 하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지구촌**

미국을 다시 일깨운 애즈버리 부흥운동(Asbury Revival)

-위중한 시대, 세상을 살리는 영적사혈(靈的瀉血) 처방

최남철 장로

수지구 은혜의 바다로 목장

지난 2월 8일, 미국 캔터키주 월모어에 있는 애즈버리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자크 미어크립스 목사가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라는 설교를 마친 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예배당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라며 영적 도전을 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부흥하도록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의 가정, 지역사회, 나라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며 설교를 마쳤다.



축도 후 찬양대의 찬양이 끝났을 때 평소와 다른,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학생 중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를 치유해 달라며 기도를 시작했고 일부는 낮은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다.

특히 죄에 대한 회개와 치유에 대한 중보, 세계 평화와 정의에 대해 기도했다. 몇몇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몇몇은 연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어서 자발적인 회개의 간증이 봇물 터지듯 이어져 나왔다. 강당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사랑의 기운이 충만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천국과 같은 공간이 펼쳐졌다.

현장에서 부흥을 직접 목격한 한 대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코로나 팬데믹,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전례 없는 불안과 외로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채플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어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자유롭게 자라온, 젊은 세대들이 주도한 이번 부흥운동은 그 어떤 인위적인 강요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형태의

부흥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온전한 평화, 신앙회복을 통해 얻은 평안, 따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저절로 우리나라는 회개와 겸손,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즈버리 대학교에 시작된 성령의 횃불은 테네시주와 인디애나주의 다른 대학으로 번져, 수많은 대학교에서 자발적인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멀리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에 이르기까지 삼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시골 동네의 작은 기독교 대학의 채플 예배가 이렇듯 미국 전역에 부흥의 물결로 확산된 이유는 이 대학교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 온 ‘부흥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70년, 2006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부흥의 물결이 이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 땅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타락이 도를 넘을 때마다 애즈버리 대학교는 미국을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맑은 허파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수많은 영적 부흥의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한 미스바 부흥,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에스라 부흥, 오순절 성령강림과 예루살렘 부흥,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 빌리 그래함 부흥성회(1973년 서울여의도) 등…….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셨다.

이번 애즈버리 부흥운동이 시작된 미국은 외견상 세계 최대, 최고의 기독교 국가이지만 동시에 마약과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루가 멀다고 빈발하는 총기사고, 무늬만 크리스천들로 넘쳐 나는 교회들, 쾌락과 죄의 유혹에 빠져 거룩한 비전을 상실하고,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며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로 인하여 그 내면은 영적으로 썩어 악취가 나는 절망의 땅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유 진영과 러시아 간의 충돌 위기,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북한의 잇단 핵 개발과 무력 시위,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애즈버리 회개·각성 운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을 지연시키는 응급처방이다. 이미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중환자와 같은 이 세상에 《애즈버리 사혈침》을 꽂아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죽음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위기에 빠진 이 세상 종말의 시계를 잠시 늦추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애즈버리에서 시작된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이 미국을 넘어 한국으로, 전 세계로 요원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길 간절히 기도한다. **지구촌**

찬양대 섬김의 은혜



유원중

주능력찬양대, 수지 2지구 사랑이 넘치는 목장

**“주 예수 부활하셨네. 죽음의 권세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놀라운 기적 일어났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이튿날 새벽에 찬양대 연습에 가려고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부활절 칸타타 <기적>의 피날레 찬양 가사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죽음을 이기시고 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찬양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부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찬양대의 대원들이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기적>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였고, 이번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제가 큰 실수 없이 무사히 잘 해 낸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서 섬길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넘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과 도전을 줍니다. 중학생 때부터 다닌 교회는 출석 인원이 적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봉사부서에 인원이 부족하여 여러 사역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권유를 받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목사님의 권유로 청년 시절부터 찬양대 봉사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다보니 실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곡을 만나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고생을 합니다.



1998년에 지구촌교회를 등록하고 아내와 함께 찬양대에서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찬양대 봉사를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저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찬양대에 속하여 얻는 축복 중 하나는 매주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 찬양곡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지만 연습곡을 여러 번 듣고 몇 차례 따라서 부르다 보면 찬양곡 안의 가사가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 예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기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해피 패밀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4월 30일 오전 10시, 12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해피 패밀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아식과 솜사탕선물, 예배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촌**

가버나움



이계원

분당5지구 밀알3목장

자인 어른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애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지긋지긋해요. …… 사는 게 개똥 같아요. 내 신발보다 더러워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짓밟히길 바라죠.

자인이 바랐던 것은 존중과 사랑이었다. 안정된 국가, 보통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되었을 가치인데 아이는 그것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슬프지만 지구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 되는 민족이 있다. 난민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전쟁이겠지만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나 인간 밀수 조직 때문이기도 하다.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감정조차 죄스럽다는 생각에 한동안 무력해진다.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 버린 아이가 있다. 부부와 여러 명의 자녀들이 살기엔 턱없이 비좁은 집, 그마저 여기저기 물이 새고 위생은 찾아볼 수도 없다. 낮잠에 빠져 있는 아빠를 대신해 자인이 생계를 도맡는다. 자인은 가짜 처방전으로 구한 마약제를 물에 녹여 주스를 만든 후 행인들에게 팔아 돈을 번다. 일이 끝나면 식료품 가게에서 제 몸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물통이나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돈을 받는다. 집에는 엄마와 같이 돌봐야 할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 12살 이라지만 너무 마른 자인의 체구는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다.

자인은 부모가 11살의 여동생을 집주인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아끼던 동생이 남은 가족들의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강제조혼을 당한다. 자인은 울부짖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른들의 매질이다. 자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간다.

자인은 에디오피아 난민 출신의 여자, 라힐을 따라간다. 불법 체류자이지만 아이를 키우며

청소 일을 하는 그녀는 돈을 모아 이곳을 벗어날 날을 꿈꾼다. 그녀는 자인에게서 착한 심성을 읽는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긴 그녀는 체류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은다. 현실은 번번이 희망을 비웃는다. 그녀는 체포되고 자인이 줄지에 아이를 맡아 돌보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돈을 모아 스웨덴으로 가려고 했던 자인의 꿈마저 산산

조각이 난다. 자인은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한 살의 아기를 브로커에게 넘긴다. 나이답지 않게 텅 빈 눈동자가 자인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한다. 어떻게든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그가 감당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차갑다.

출생증명서를 찾으러 왔다는 자인에게 아버지는 코웃음을 친다. “우린 그냥 별레야. 기생충이라고. 서류 없는 삶을 인정하고 살든지 창 밖으로 뛰어내리든지 둘 중 하나야. 알아들어?” 자신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도 비극인데 결혼한 여동생이 죽었다는 말에 자인은 이성을 잃는다. 그는 주인집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면회를 온 엄마는 임신한 사실을 알려 준다. “신은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돌려주신단다.” 엄마의 말에 자인은 다시는 오지 말라며 돌아선다. 그는 ‘생방송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를 고소한다. 재판이 열리고 자인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왜 부모를 고소했냐는 질문에 자인이 대답한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요.” 판사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다. “애를 그만 낳게 해 주세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본인이 피해자라는 부모보다 애를 낳지 않게 해달라는 자인의 말이 차라리 인간적으로 들린다.

출생증명서가 없어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서류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처음으로 해맑게 웃는 얼굴이 그가 아이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도 레바논의 빈민촌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이 모두 자인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그랬듯 가난을 이어받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고민하고 저항했던 자인의 용기와 생존의 의지가 난민의 삶을 탈출하게 했다. ‘자인과 가족들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노르웨이에 정착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그곳에 닿고, 더 많은 자인이 생겨날 때 가버나움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지구촌**



필자 소개 지구촌 평생교육원 <책과 영화에 빠지다>, <소피의 책 읽는 시간> 강사 / 판교 현대문화센터 <세상의 모든 영화> 강사

영적 근육 키우기 12주차



허정식A 집사

분당3지구 작은천국목장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새롭습니다. 말씀으로 하루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그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까지 표현될 때 저의 인생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됨을 경험하곤 합니다.

최성은 담임목사님께서 2023 영적 해법으로 '나'라는 경계선을 넘는 실제적인 올해의 적용, 나의 영적 근육 키우기, 나의 영적 사용하기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벽기도와 함께하는 큐티 30분,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15분을 통해 내 안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 순종의 잠재력을 깨워 줄 영적 근육이 생긴다고 알려 주신 만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단단하게 영적 근육 키우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본 후 먼저 그 분야에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이 있는지 일단 성경책을 펼쳐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영적 근육맨,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 영적 근육맨, 다니엘

혼란과 억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20)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근육맨, 다윗

묵상을 통해 복과 함께 마음속 깊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119:1)

찬양하는 영적 근육맨, 시편 기자

묵상하는 사람들은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편 1:1-2)

최고의 영적 트레이너 예수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침묵기도, 합심기도, 주기도문 등 멋지고 훌륭한 영적 근육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2-4)

근력도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자극과 함께 꾸준하고 습관적인 운동이 단단한 근육을 만듭니다. 영적 근육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동 목적에 따라 세트수와 반복수를 정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매일 큐티 30분, 성경 읽기 15분, 한맘 기도 15분씩 단계별로 꾸준히 영적 근육을 키워나간다면 결국에는 영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가장 좋은 영적 근육을 가진 영성 깊은 영적 근육맨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악당을 물리치고 겸손의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성령의 열매들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펼쳐 나갈 지구촌교회의 영적 근육맨들의 활약상을 즐겁게 상상해 봅니다. **지구촌**

2023 독일·체코 해외 기독교 사적지 순례 소감문



나종남A 장로

수지4지구

개인적 관광이나 건축물 답사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온 경험은 있으나 사적지 탐방 목적으로 프라하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타보르라는 도시가 궁금했는데, 휴스 박물관과 미로처럼 생긴 카타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항전을 하며 휴스타를 탄압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니…… 고개가 절로 숙어지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부끄러워졌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자 경건주의 운동의 배경을 만든 얀 후스가 사역했던 베들레헴교회를 둘러보고 프라하의 중심거리에 있는 휴스 동상을 보며, 숙연함을 느꼈다. 헤른후트에서는



1



2



3

사진설명

- ① 종교전쟁에 만들어진 12~14km 카타콤
- ② 마틴루터동상
- ③ 루터가 종신을 서원하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덤이 있는 성 토마스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 교회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고대 로마 가톨릭 성당의 상징이었던 하늘 높이 솟아오른 웅장한 외관, 각양의 동상들 그리고 휘황찬란한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실내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소박한 모습에서, 백작의 후예로서 안락하고 명예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삶보다는 공동체에서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진젠도르프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자 했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자기 주변의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끌어안고 보살피는 구제와 긍휼에 힘쓴 헤른후트 공동체가 남겨 준 유산과 묘지를 둘러보면서 수많은 성인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할레대학은 경건주의 신앙운동의 중심이자 리더십을 키운 학교이다. '경건주의 아버지' 스페너, 교수와 총장을 지내며 사실상 할레대학을 경건주의의 이상을 대학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프랑케의 동상과 재단을 관람하였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유물들을 보니 수백 년 전의 모습이 떠오르며, 옛 성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구촌교회가 지향하는 셀 교회, 목장 모임, QT, 중보기도, 세계선교 등의 뿌리 내리는 일이 가능하였음을 새삼 느꼈다. 다시 한번 지구촌 교회의 사명과 비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지구촌**



2023 독일·체코 해외 기독교 사적지 순례 소감문



박예림D

청년지구

최근 답답했던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의 끝에 나에게 필요한 쉽은 ‘전환’이란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혹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시선이 바뀌는 것 등,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환기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익숙함에 환경 탓하며 미뤄 두고 시작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니 유럽 여행이었다. 물론 여전히 막연하게 느껴졌으나 기도해 보려고 했다. “하나님 저 유럽 가 보고 싶어요. 오래 진짜로 꼬옥 가 보고 싶어요.”

이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독일·체코 연구 투어 참여를 제안받았다. 첫 유럽 여행의 목적이 단순한 놀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시려는 것 같았다.

체코 프라하에서의 첫째 날, 긴 비행시간의 피곤함을 생각할 새 없이 방문하는 곳곳마다 눈이 번뜩 뜨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베들레헴교회의 얀 후스가 경건주의 운동을 외치다 화형당하는 그림부터 파이프 오르간, 교회 삼면에 크게 뚫려 있는 창문, 그 모든 예배의 흔적·현장·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 이게 진짜 쉽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 마음은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에 더 강하게 다가왔다. 경건주의 운동 3인방인 ‘슈페너·프랑케·진젠도르프’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 보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그 수많은 운동과 전쟁, 다툼의 시기가 다 지나고 평안히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나 감사하기도 했다. 물론 경건주의 운동,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때와는 다른 모양의 박해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의 대항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가장 큰 인상과 은혜를 끼쳤던 곳은 헤른후트 모라비안 교회였다.

원로목사님의 사적지 탐방 가이드북을 빌려 설명하자면, 헤른후트는 독일 동부 주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체코와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가 있는 이곳에서 그는 여러 난민들 특히 체코 모라비안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실제 유숙했던 난민들은 “실제로 하늘에 집이 있으니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등의 소감을 남기고 갔다 한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모라비안 교회가 있다. 새하얗고 소박한 교회였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 아닌, 진젠도르프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남겨 둔 이 교회는 우리 지구촌교회 목장을 떠올리게 했다.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영성으로 각 처소와 셀 등에 모여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권면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목장 말이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에서 그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우리 각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그 수가 많은 적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실로 경건주의 운동, 더 나아가 종교개혁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진리는 없다’ 라고 말하며 YOLO의 삶을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한번 사는 인생 놓고 먹자가 아닌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는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경건주의 운동의 씨앗을 받아 열매 맺고 자란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의 열정과 삶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이 자리,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들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다. **지구촌**



할레 비텐베르크대학 교정에 있는 독일 경건주의 꽃을 피운 지도자 프랑케 동상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 아미용 강좌



강혜경D

제가 품고 있는 봉사에 대한 소망은 아름다운 그림이면서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집과 가까운 지구촌교회로 등록을 하였고,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평생교육원을 만났습니다. 손으로 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강좌들 속에서 이·미용 반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목장의 친한 언니와 이·미용을 배워서 시골로 선교를 가자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었는데, 작년 가을학기가 되어야 비로소 이·미용 화요일반을 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운 미용은 남 주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미용 반의 구호입니다.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빛은 주변까지 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미용 반 강선화 선생님을 통해 배웁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터득하셨을 소소하고 세밀한 기술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수해 주시는 덕분에 배움이 더욱 즐겁고 다음 교육 시간이 기대됩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는 초등 5학년 아들이 선뜻 따라와 시연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소에 미용실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던 아이가 베테랑 선생님의 아이돌 스타일 커트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에도 엄마의 선생님에게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합니다. 어서 열심히 배워서 내 아들부터 만족시킬 수 있는 커트 기술을 연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다면 진짜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쓰임이 훌륭한 강좌입니다)

그렇게 가을과 겨울 분기를 지나 현재는 선생님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미용 특별반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까먹는 뭉쓸 기억력을 부여잡고 일단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러 기술을 실습해 봅니다. 딸아이의 긴 머리를 가지런하게 다듬어 주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 주고, 아이 친구의 머리를 잘라주고, 친정엄마의 머리에 롤을 말아주면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언젠가는 시작하고 싶은 봉사에 대한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라는 시간을 나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나쁜 습관처럼 먼발치에 두고 있었나 봅니다. 이·미용 선생님께서는 치매 병원이나 요양원 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갈 듯이 신나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미용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인 선교에 대한 마음은 가려지고 갑자기 부담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프고 병드신 분들을 찾아갔을 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을 잇고 초점이 나의 마음에 쏠립니다.

여전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4-5)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회개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용 반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언니들과 강선화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배운 기술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품고 있던 봉사에 대한 오래된 소망을 이제는 이·미용 반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새 소망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계획되어 있는 ‘전주 선교’에 대해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은 더욱 배워야 할 부족한 실력이기에, 이·미용 반 구호처럼 나의 배움이 이웃에게 기쁨으로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며, 만만하기 그지없는 우리 집 남매의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오늘도 호시탐탐 노립니다. **지구촌**

엄마와 딸

뭘 얘기해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미성숙한 엄마



이혜진

분당6지구 탄천 은혜6목장

엄마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딸들은 엄마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 서운한 얘기들도 더러는 할 때가 있다. 친구들끼리는 웃으며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가끔은 서운한 얘기도 하며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은 선에 그럭저럭 마무리를 잘한다.

그런데, 엄마와 이런 저런 얘기와 서운한 얘기,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받아주기는커녕 엄마가 벌써 빠져 있거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으로 위축되어 들어가거나 때로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엄마가 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버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엄마는 큰 대지 같아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냐고 말해 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야기 같고, 쉽사리 토라지며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엄마와 나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왜 했을까 하며 자신을 우울 상태로 전환시킬 것이다. 엄마가 고쳐지지 않으니 늘 엄마는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다.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떡하니?”라고 말해서 말을 하기가 겁나고 다시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한다.

오늘도 나영 씨는(가명, 내용은 각색하였음) 조금만 불안해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문제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집중이 되었다. 엄마는 좋을 때는 사랑한다는 얘기와 안아 주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

이었다. 기능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 엄마는 늘 하던 대로 나영 씨를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생활습관에 대해 지적하고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로 취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는 늘 가족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기 일쑤였다. 이런 엄마가 그녀는 불편했다. 엄마에게 무슨 얘기라도 하면 식구들에게 금방 알려져 엄마를 믿을 수 없었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엄마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나영 씨는 사실 엄마가 바라보는 집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밖에서의 모습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며, 일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뭘 제대로 못 하고 허술한 아이가 아닌 집 밖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길이면 불편했다. 습관처럼 잔소리하고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엄마의 시선 때문이다. 나영 씨가 회사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매우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상담하면서 엄마에게 실수하면 안 되고 늘 잔소리를 들었던 것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회사에서 실수하면, 과하게 죄책감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극심한 불안이 엄습해 왔다. 엄마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회사에서의 일들을 얘기하고 싶어도 엄마가 대답할 말이 뻔하기 때문이다. '네가 원래 그렇지 뭐'의 식 얘기들이 돌아올까 봐 힘들었다. 살아오면서 엄마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경험으로 알기에 엄마에 대해 믿을 수 없었다. 그냥 신뢰하며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을까? 불안해"라고 말을 못 하므로, 엄마한테는 늘 좋은 얘기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다.

부모가 안정적이지 않고, 부모에게 비난을 자주 받았던 사람은 일에 있어서 제대로 소화하려고 매우 꼼꼼하고 다시 확인작업을 몇 번이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커지게 되어 쉽게 피곤해진다. 그리고 무슨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매우 크게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 불안과 초조가 극심해진다.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공황상태가 되어 버린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모의 잔소리와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회사에서의 압박까지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불안해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안은 현재를 꼼짝 못 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화를

시키지 못한다. 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내담자도 사실은 자신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양이다.

나영 씨와 상담하면서,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나누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색을 진하게 색칠해 보는 작업을 했다. 너무 흐려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 불안이 조금은 덜해짐을 느꼈다.

또한, 엄마의 말 중에 비난이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엄마와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정감을 스스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기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심리상담전문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나누면 도움이 된다. 엄마가 잘해 줄 때와 비난과 잔소리할 때의 간격이 크고 자주 있는 일이라면, 굳이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엄마가 비난할 때는 공간의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명명한 대로 나로 나 자신이 확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엄마와 사이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의 거리를 두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는 것이고, 때로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비난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일 처리를 할 때 매우 강박적으로 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지 않나. 자신을 믿고, 일 처리 하는데도 조금씩 완벽성을 떨어 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불거져 실수로 될 수도 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크게 소모되어 쉽게 피곤해진다. 그러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은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영 씨는 오늘도 엄마의 비난과 회사에서의 일 처리를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객관화와 타당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를 지지한다. **지구촌**

(나다움 심리상담센터 소장/ 상담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Again! 감사

연규흠 권사

분당 6지구 직장자매마을 마을장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10)

감사!

누구나 평탄하고 부유한 삶 가운데서는 감사하기 쉽다.

그러나 사방이 가시덤불 같은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지만, 사실 감사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드러나는 영적 실력이 아닐까 싶다.

다니엘은 바사(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다리오 왕이 '지금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도 구해 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가시덤불 같은 인생길에서도 꽃을 피워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

또 다른 감사와 형통의 길을……. **지구촌**

2023. 5.13-6.2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뜨랑슈아카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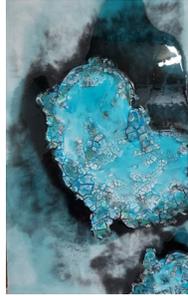
지구촌 미술회 제25회 바실레이아 정기전

기나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하늘이 보이는 순간 눈앞에 푸르름이 쏟아지는 것처럼, 2023년 봄에 드디어 '코로나'라는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는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눈부신 새로움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실레이아' 정기전은 2019년 정기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뜻깊은 전시입니다. 기존의 전시 작가들은 물론 새롭게 참여하는 작가들까지, 지구촌 미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치러지는 이번 전시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을 오가는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누리면서 전시 작품들에 담긴 따뜻한함을 눈과 마음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명을 갖고 참여해 주신 작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구촌 미술회 작가님들의 작품이 '바실레이아—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박정선
 분당8지구 청솔사랑2목장
 지구촌교회 갤러리 단장



세상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을 위한 따뜻한 마음

- 화성시동탄아르담복지관



성민이(가명, 15세)는 강직형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복지관 물리치료 재활서비스 이용자입니다.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를 함께 앓고 있어, 꾸준히 운동을 하여 근육의 힘을 기르고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늘도 성민이와 성민이의 어머니는 함께 손을 잡고 복지관 복도에서 걷기 연습을 합니다. 성민이는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의 힘을 빌려 스스로 걷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성민이가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어머니! 지금처럼만 걸으면 런닝머신도 잘 걸을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는 복지관 물리치료 선생님과 로봇재활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 가며 성민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성장기인 성민이에게는 키에 맞는 워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사용하는 워커는 높이가 낮아 허리를 굽힌 채로 걷기 연습을 해서 오랜 시간 걷기 운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복지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조기기를 후원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던 한 아버님의 따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령의 연세에도 복지관에 방문하시어 따님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시던 아버님께서 더 이상 보조기기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을 잊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후원 물품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 귀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조기기의 주인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높이가 높은 워커는 성민이의 걷기 연습에 꼭 맞는 보조기기였고, 회의 끝에 성민이에게 보조기기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높이가 낮은 워커로 성민이가 허리를 굽히고 걸었는데 이번에 높이가 높은 워커를 후원받게 되었어요!”

“정말요?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민이와 어머님은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는 워커를 통해 더는 불편하지 않은 바른 자세로 걷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 복지관을 오고 가는 시간, 주말까지 복지관에 방문하여 걷기 연습을 하는 성민이와 어머님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성민이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큰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민이는 현재 런닝머신을 탈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로봇재활에서도 열심히 운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러닝머신 위에서 활짝 웃으며 당당히 걷는 성민이의 모습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이웃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성민이와 어머님에게 행복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지역사회에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화성시동탄아르뎀복지관을 소개합니다!

화성시동탄아르뎀복지관은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화성시 동부권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지기관입니다.



미션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디딤돌
비전	2023년! 사람을 바라보고 혁신을 추구하는 아르뎀
핵심가치	발견, 공감, 지원, 책임
개관일	2018년 1월 1일
등록인원	1,989명 (2023년 3월 기준)
종사자	총 57명

- 주요사업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발달지원사업



운동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일상지원사업



부설 주간보호센터

- 기도제목 -

1. 복지관의 모든 이용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소서.
2. 복지관 이용 간에 안전사고, 도전적 행동과 실종이 없게 하시고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구촌**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구분	분당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08:00	본당(4층)	1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2부 예배	10:00	
12:00		3부 예배	12:00	
14:00		더함예배 청년/청년2/통일비전	14:00	
16:00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16:00	
05:30	본당(4층)	새벽기도회 (월-토)	05:30	그레이스홀(로비층)
11:30		항수예배 (수)	11:30	본당(8층)
	파워웬즈데이예배 (수)	20:00		
20:30	본당(4층)	금요노헤미야기도회 (금)	20:30	
10:00		시니어예배 (금)	10:00	

● 교육목장 주일예배

10:00 12:00	111호	영아촌 0세-36개월 (부모 동반)	10:00 12:00	702호
	110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0호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	중등마을 중1	10:00	206호
	310호			중2-중3
12:00	310호	중1-중3	12:00	206호
10:00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0:00	412호
			12:00	209호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12:00	202호	아름학교 어린이/청소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예배	12:00	L02호(L층)
		농아인 예배	10:00	L02호(L층)
			14:00	본당(8층)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장년	10:00	선교센터 (MD프라자)	올네이션스홀(B1층)
		청년	14:00		다니엘홀(701호)
		청소년	10:00		글로벌리아홀(8층)
		어린이			햇빛마당홀(B1층)
	미취학	10:00	에스겔홀(7층)		
	몽골어 예배	10:00			
	중국어 예배	10:00			
	중국어 주일학교	12:00	소피아홀(8층)		
	일본어 예배 / 일본어 주일학교	14:00			
이주자 예배	13:30	글로벌리아홀(8층)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경기대채플		GMN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1부 예배							08:00	
2부 예배	10:00	텔레컨벤션센터	10:00	GMN채플	09:20	갯세마네채플	10:00	믿음채플(5층)
3부 예배	12:00		12:00		11:00	카리타스채플	12:00	
청소년 예배	10:00 12:00	복지관B207호					10:00	소망채플(6층)
어린이 예배		복지관B206호					12:00	사랑채플(6층)
미취학 예배		복지관B202호					12:00	
수요예배					19:00	갯세마네채플	19:30	
금요비상기도회							20:30	믿음채플(5층)
새벽기도							05:30	
토요기도회					19:00	갯세마네채플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마로 52(MD프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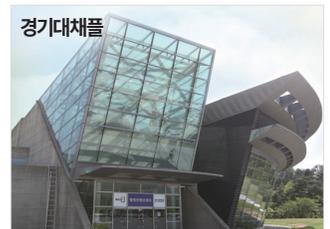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기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1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이리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만로 86 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1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2 원고접수 게시판에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원고문의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편집부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10:00, 12:00, 14:00, 16:00
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라디오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00-9:30
모바일 (스마트폰 앱)	· CTS라디오조이 말씀채널 : 월 오전 3:30, 7:30, 11:30, 오후 3:30, 7:30, 11:30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5:30-6:00 'SKY LIFE(CH 183), QOOK K(T 236), BTV SK(CH291), U+TV LG(CH 269), · CGN 토 오후 7:10, 주일 오후 6:00 화 오전 7:20 이동원 원로목사(영어자막) · GoodTV 주일 오후 2:30 · CBS 토 오전 7:30-8:20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미야기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81-25-201-8122
동경복음교회	2-45-9 Toukyoufukuyouka, Higashinipori, Arakawa-ku, Tokyo, 116-0014, Japan	+81-3-3891-0747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okyo-to, Shinjuku-ku, Hyakuninchō, 1 Chome-9-3, Japan	0574-86987477
상해지구촌교회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64-27-414-2777
호치민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克蘭드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64-9-216-1177
닝보교회	1-11902, 338, ningchuan-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e, China	0574-86987477
동역교회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은로 217 (지곡동 456-2)	031-283-7991
글로벌지구촌교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키아일랜드빌딩 3,4층	061-332-0191
대뉴지구촌교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상가 3층	02-431-6458
대라이프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031-212-2291
동백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2층	031-693-8291
동탄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원곡매로 168-1(중동 44-4번지)	031-8003-8253
라운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3 (송동 여울보안지소) 5층	031-375-8891
만방샘 목장교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문프라자 2층 202호	031-896-0300
민들레지구촌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6. 4층	070-7757-1201
세움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대로 53번길 27-24(서천동 397-20)	031-205-1191
산동탄 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신천로 278 리디스뷰프라자 3층(오산동 456)	031-376-3055
영광지구촌교회	서울 강동구 상일로61길 32 1층	010-2555-4642
온사랑지구촌교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침몰윗길6번길 8 (능평리)	070-4119-5941
죽천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031-896-7070

협력교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저지 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늘기브교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031-978-0121
더사랑지구촌교회	부산 영도구 영안대로 40	051-415-0831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 연수구 쉼터101대로230번길 42 이라프라자 4층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사로 379	02-2647-0191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25 Gamsey Ave. Bakersfield CA, 93309	(346) 317-8766
세종지구촌교회	세종 장군문 대교길 117-15	044-862-1441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시목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043-269-1941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영주침례교회	경북 영주시 명륜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8	051-518-4189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033-748-0032
천안 지구촌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 춘천시 성삼로 47번길 99	033-254-4059
함몰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571) 719-2592

건강한 소그룹 사역 있는 교회에 부흥 일어날 수 있어 기독일보 22.9.4

교회 소그룹 건강하면,
성도 신앙도 건강하다 한국기독교신문 21.11.18

코로나 이후 교회 건강,
활발한 소그룹 시스템이 좌우 크리스천투데이 21.5.27

단절의 시대, 세상도 교회도 '소그룹' 필요하다 기독신문 22.6.27

AGAIN
'교회미래'

12제자 비전(Cell)이 답입니다

2023 GLOBAL CELL CONFERENCE V15

5. 24^{WED} - 26^{FRI} 지구촌교회 분당채플

MAIN SPEAKERS



이동원 원로목사



최성은 담임목사

SPECIAL SPEAKERS



톰 레이너 목사



지용근 소장

등록방법 등록부스 4.23주일, 5.7주일 수지1층 / 경기대채플 / 분당 L, 7, 8층 운영
셀컨퍼런스 홈페이지 www.jiguchon.or.kr/cc/2023

등록비 내부성도 1만원 (교재포함, 식사제공 없음)

문의 셀컨퍼런스 진행본부 031-710-5999, 9430 · cell@jiguchon.org



“예수님을 만나면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편 30:11

